

수질총량제 관련 제품 한자리에...

선진기술 적용된 기자재에 지자체공무원 “관심집중”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워크숍과 병행하여 총량제 관련 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선진화된 수질보전 정책이다.

그동안 오염총량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한강수계의 의무제 총량제 도입을 이끌어냈고, 3대강 수계는 12개 시·도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지역의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아울러 제 2차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등 오염 총량제가 차질 없이 추진·정착되고 있다.

올해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하여 한강수계특별법을 개정하고, 3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본격 시행이 추진된다.

2006년은 시행계획 대상지역이 시에서 군지역으로 확대되고,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실시되는 등 제1차 수질오염 총량제의 마지막 단계를 밟는 중요한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워크숍에 총량제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선보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수질총량관련 산업체 전시회에는 (주)성신엔지니어링(여과기), (주)동일그린시스(계측장비), (주)세기종합환경(수처리공법), (주)일성종합기계(펌프), (주)부강테크(수처리공법), 정우교역(주)(계측장비), (주)드림바이오스(계측장비), (주)휴마스(계측장비), 브란루베(주)(측정장비), 동문과학상사(측정장비), (주)휴먼코퍼레이션(측정장비), 동일화학(여과기, 환경약품), 한국바이오시스템(주)(수처리공법, 계측장비) 등이 참가했다.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올해는 수질분야에 국한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지만 내년부터는 대기 및 폐기물처리부문도 함께 참여시키는 등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

